

# 전문성 담은 '전문가 소설' 등장

생명공학·천문학자, 미술사학도, 바둑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

전문가들의 지식과 정보를 소설적인 재미로 전하는 '전문가소설'이 등장했다. 다양한 독자층의 욕구는 더 이상 일반 소설들이 들려주는 내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됐다. 이미 독특한 소재와 높은 문학생성으로 각광을 받은 외국소설들이 국내에도 번역·출간되었고, 이 가운데 많은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해 독자들에게는 친숙한 형식이다. 아직 문단에는 낯설지만, 한 출판사는 아예 '전문인 소설'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펴내 국내에도 전문가소설이 문학계의 한 흐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 카오스이론·천문학의 지식이 토대

기획출판을 표방한 명진출판(대표 안소연)은 최근 '전문인 소설' 시리즈 첫권으로 이종호 소장(한국이동에너지연구소)의 《아누비스》를 펴내 화제를 모았다. 이 책은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를 관장했던 신 '아누비스'를 제목으로 내세워 고대 이집트인들의 꿈이었던 '영원불멸의 삶'과 이를 실현할 생명복제과학을 절묘하게 조합했는데, 저자는 프랑스 페르비낭대학에서 카오스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다.

《아누비스》는 인간복제에 성공한 과학자와 그를 추적하는 파리경시청의 한국인 형사 이관형 사이의 추격전을 뼈대로, 사이사이에 생명공학의 전문지식과 이집트문화에 대한 이해가 녹아 있다. 프랑스를 무대로 이집트의 고대문화와 첨단 생명공학이 만나고,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대결이라는 구도도 사람들의 흥미를 돋운다. 현실로 가시화된 인간복제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암시로 끝맺은 결론이 과학과 윤리성을 생각케 한다.

인간복제와 함께 금세기 마지막이라는 개기월식과 혜성의 방문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난데없는 UFO 신드롬도 우주의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천문학자 박재석씨(천문대 천문정보연구실장)가 쓴 《가리봉의 비밀》(예음)은 이같은 관심에 부응하는 우주소설이다. 설악산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괴질을 추적하던 중 외계인의 존재와 맞닥뜨려 결투를 벌인다는 《가리봉의 비밀》은 저자의 우주·천문학·외계인에 대한 지식이 토대가 됐다.

이처럼 과학적 진리를 바탕으로 소설적인

생명공학 같은 과학이론에서부터 미술사·군사학·바둑·컴퓨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소설을 출간, 색다른 재미와 참신한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상력을 펼치는 과학소설은 전문가소설 가운데서도 가장 매력적인 장르. 지난해 잇따라 출간된 과학소설은 우리나라에도 전문가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김도현씨는 인공위성을 제작하기 위한 실험실의 젊은 과학자들의 생활을 소재로 《로그인》(창작과비평사)을 펴냈는데,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과학의 발달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같은 철학적 화두를 전문지식과 함께 잘 풀어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다녔던 경험을 살려 KAIST와 포항공대생의 해커전쟁을 실감나게 그린 《사과전쟁》(김은영, 세명문화사)은 인터넷을 무대로 치열한 첨단전투를 벌인다. 《인과율》(무당)을 펴낸 송은영씨 역시 전공인 원자핵물리학의 주요개념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과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철학적으로 다뤘다.

이같은 과학소설의 특징은 일반 소설가들의 과학소설과 달리 '공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공에서 얻은 구체적인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소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독자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전문가소설이 더욱 다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전문가소설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아 법률·의학 등 전통적인 영역을 뛰어넘었다. 인류학과 의학지식으로 공룡을 되살려낸 《쥬라기 공원》(마이클 크라이튼), 기호학적 지식과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장미의 이름》(움베르토 에코), 세밀한 관찰로 생물학의 폭을 넓힌 《개미》(베르나



르 베르베르), 철학적 문제를 동화처럼 풀어 쓴 《소피의 세계》, 이집트학 전문가인 크리스티앙 자크의 역사인물소설 《람세스》가 모두 전문가소설이다.

## 참신한 소재로 색다른 재미

국내의 출판시장에서도 미술사학도·전쟁애호가·바둑인·노동자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책을 펴내고 있다. 프랑스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있는 송대방씨가 쓴 《헤르메스의 기둥》(문학동네)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파르미지니아노의 '목이 긴 성모'에서 모티브를 얻어 끔찍한 살인사건의 전모를 파헤쳤는데, 책에 녹아 있는 미술사적 지식의 양이나 깊이가 미술사책 헌권과 맞먹는다.

전면전을 가상해 발령되는 방어준비태세를 뜻하는 말인 '방어준비태세(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약자인 '데프콘'을 제목으로 한반도의 전쟁시나리오를 세밀하게 그려낸 《데프콘》(고도)은 아마추어 밀리터리 동호회 회원의 작품이다. 별난 주제에 관심을 갖는 요즘 젊은이 김경진씨가 PC통신의 밀리터리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가상전쟁을 그려냈다.

개인적인 특수체험이 그대로 글감이 된 경우는 바둑인 조세래씨의 《역수》(솔마루)와 노동자 이재관씨의 《알왈이들의 합창》(보리)이다. 전태일문학상이 처음 마련한 글쓰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알왈이들의 합창》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으로 골리앗 파업 때 경험했던 감옥살이를 그대로 묘사한 것. 바깥 사회의 힘의 질서가 그대로

통용되는 감옥 안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이 소설은 평범한 노동자의 관점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의 전문가소설이라 할 수 있다. 실존했던 바둑 기인 추동삼의 삶과 기행을 그린 《역수》는 맛있게 지기 쉬운 대국장면을 묘사하는 데서 전문가적인 지식이 특히 잘 드러나 있다.

《아누비스》를 펴내고 뒤이어 한글과컴퓨터의 이사 강태진씨의 《사이버 로망》(가제)과 동성에 이룬가 서동진씨의 소설을 준비하고 있는 명진출판의 홍석봉 기획실장은, 전문가소설을 두고 일각에서 일고 있는 문학생 문제는 시간이 좀더 지난 후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장르해체의 시대에 더 이상 통속소설과 본격소설이라는 이분법은 유효하지 않다"며, 전문가소설이 "독자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색다른 재미를, 문학계에는 참신한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전문가소설은 고정된 독자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만큼 전문가소설의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학자나 기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대중화에 대한 실험이나 노후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을 탄탄한 구성과 문학적 형상화로 끌어올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진단이다.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 하나 둘 생겨난 법률문학상·불교문학상 등 전문분야의 문학상도 전문가소설의 비옥한 토양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현주 기자